전주시-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 일자리 창출 앞장

4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섬유봉제 전문기능인 51명 등 총 93명의 기능인력 양성

전주시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임경진)가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올해 완료되는 희망드림 새(new) 일(job) 프로젝트인 '한류패션 여성일자리 활성화사업'을 통해 섬유봉제 기능인력 및 한류패션분야 전문인력들을 양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류패션 여성일자리 활성화 사업은 지난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3년간 총 3억1600만원을 지원받아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취약계층 및 취업 희망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2년 2개월여 동안 4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해 섬유봉제 전문기능인 51명과 퀼트전문가 10명, 침선공예전문가 11명, 한복전문가 21명 총 93명의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55명의 취업연계와 14명 창업지원과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하는 데 힘써왔다.

이와 함께 수료자 취·창업 사후관리를 위해 섬유봉제 전문기능인력 패턴캐드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한류사업 운영 전반에 따른 교육생·강사·실무자 간담회와 창업특강, 창업컨설팅, 창업캠프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침선공예전문가 과정 수료생 5명이 '맘부'라는 이름으로 지난 4월 작업장을 개소해 창업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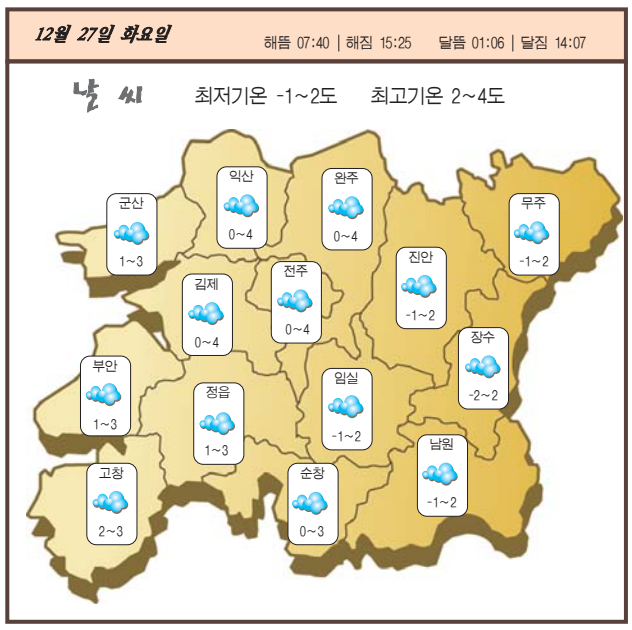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올해 완료되는 희망드림 새(new) 일(job) 프로젝트인 '한류패션 여성일자리 활성화사업'을 통해 섬유봉제 기능인력 및 한류패션분야 전문인력들을 양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퀼트전문가 수료생들과 섬유봉제전문가 및 한복전문가 수료생들은 각각 '바늘소리'와 '귀한손길' 협동조합을 설립,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전주한옥마을 오프라인매장 '다온공예'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작품전시와 판매사업, 체험활동 및 상품개발에 힘쓰고 있다.

임경진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이 사업을 통해 한류패션 여성일자리가 활성화 되고, 꿈꾸는 여성들이 당당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 새 일을 시작하는 여성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으로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17년에도 협동조합 운영자립과 여성들의 일자리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063-232-2347~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재 기자



나눔 실천 착한가게

'오순도순 나눔터'로 지정

전주시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남몰래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온 자영업자 등을 '오순도순 나눔터'로 지정했다.

시는 26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종오 단풍미인 대표 등 2016년 한해 이웃사랑과 나눔 실천, 재능기부에 앞장서온 업체 대표 1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순도순 나눔터' 기념패 전달식을 가졌다.

올해 오순도순 나눔터로 선정된 업체들은 지역사회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2년 이상 나눔 실천을 실행하고 있는 업체들로, 기념패 전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2회째다.

오순도순 나눔터로 선정된 업소들은 올 한 해 동안 △독거노인 점심 대접 △소외계층 명절선물 전달 △장애인 반찬 배달 △저소득 가정 장학금 지원 △지역복지단체 푸드뱅크 지원 △이·미용 무료봉사, △자원봉사단체 재료지원 등 다양한 자원봉사 나눔 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해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여 왔다.

오순도순 나눔터로 지정돼 기념패를 전달받은 이종오 단풍미인 한우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음으로 준비해 따뜻한 밥을 함께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나눔은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닌, 나눠서 커지는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나눔 실천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에도 동 주민센터와 자원봉사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오순도순 나눔터'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고교 학점제 도입 학교현장 혼란 없도록 해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연결되지 않으면 부작용 우려" 지적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추진키로 한 고교학점제 도입 등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대학 학점제와 비슷한 방식을 고교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하지만 이 방안이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연결되지 않으면 학교현장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에도 대학처럼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한 뒤 학년에 상관없이 자율 선택해 수강하도록 하고 졸업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장을 수여하는 방식이다.

김 교육감은 특히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다"면서 교육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입시제도와 연결해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교차 감사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충청권의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충남교육청의 스쿨넷 사업 등 전산분야를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 등을 적발한 데 이어 내년에도 상?하반기에 각 한 차례씩 교차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이들 4개 교육청은 내년에도 고등학교 2곳을 교차감사하기로 했다. 해당지역 교육감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한다"면서 "우리 교육청이 당장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내용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마이스터고 올해 취업률 강세

마이스터고인 전북기계공고와 군산기계공고의 올해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 경기불황과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전북도교육청은 전북기계공고가 현재 91%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2명, 현대자동차 15명, LG화학 1명 등 대기업에 3학년생 91명의 취업이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3명, 한전 1명 등 10명이 공기업이나 정부산하연구원에 취업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군산기계공고도 공기업에 25명, 1백43명이 중견기업 또는 강소기업에 취업이 확정됐다. 현대자동차 10명, 삼성전자 6명, 포스코에 3명이 합격한 상태다.

/정해은 기자